“F1 지원법 제정, 도민의 힘”

박준영 지사 “李대통령·지역 국회의원에도 감사”

“F1 2~3년내 수익…순천 정원박람회 적극 지원”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16일 “F1 대회 지원법 제정과 국제정원박람회의 순천 유치는 전남도민과 지역 국회의원들의 많은 노력 덕택”이라고 말했다.

박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원법 제정은 F1대회가 국가행사로 승인을 받았다는 의미이며, 대회성공을 위한 시행령과 조직위를 만드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코리아 F1 대회는 당장은 손해를 보겠지만, 개최 이후 2~3년 내에 수익을 낼 것”이라며 “F1 이외에 다른 자

동차 경주 등 경기장 활용방안과 기념품, 부대사업 등을 통해 수익모델을 만들어 내고, 관람객들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관광 인프라도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지사는 F 지원법 제정에 큰 도움을 준 이명박 대통령과 지역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민주당 최인기, 유선호 의원과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 등이 많은 노력 끝에 법안을 발의했고, 법이 통과되기까지 민주당이 당론으로 결정하고 정세균, 원혜영, 박지원, 서갑원 의원 등이 앞장서 지원해 준 것이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박 지사는 특히 “연초 이 대통령의 전남도 방문 이후 법 제정의 필요성 설명과 함께 지원 약속을 받는 등 마지막 단계에서 대통령이 큰 힘을 실어줬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예산지원도 정부가 경주장 건설비용 880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며 “전남도의 건의를 수용해서 기획재정부 등이 이미 결정했다”고 말했다.

박 지사는 지난 16일 순천 유치가 확정된 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준비에 대해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지방 자치권 실효성 보장하는 헌법 개정 논의를”

시·도지사협 ‘정책포럼’ 제기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치권 보장을 위해서는 법률적 차원을 넘어 헌법의 범주에서 그 제도의 본질과 내용을 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지난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제 18차 지방분권 정책포럼에서 최봉석 동국대 법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지방자치에 대한 보장이 입법자(국회)의 입법형성권 영역은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현행 헌법은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권한 배분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지 않아 지방으로 하여금 국가의 위임사무처리기관 내지 지역민원 창구의 위상에 그치게 하고 있다”며 “특히, 국세본원주의 내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대한 신축적인 대응을 방기,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지자체들이 이른바 ‘구걸자치’를 할 수 밖에 없도록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이에 “지자체의 자치권 즉,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자치계획권 및 자주재정권 등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는 헌법의 개정이 근원적이고 궁극적인 과업”이라면서 “더불어 주민참여를 헌법하위에서 입법자의 법률규정에만 맡기는 제도적 폄하 또한 수정되어야 할 과제”라고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중권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자체의 자치권을 헌법에 담는다 하더라고 구체적 형성은 의회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만큼 개정의 성과를 확신하기 힘들다”며 “핵심은 중앙정부의 의지와 철학의 차원”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호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실장은 “국회 입법 및 정부 정책 결정에 지방정부의 의견이 실효력 있게 반영되지 못하고 있어 부당한 입법과 무리한 행·재정적 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지방신문협회＝임동욱 기자

6자회담 재개 탄력받나

中 다이빙궈-北 강석주 회동, 북핵 등 논의

중국 다이빙궈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지난 16일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특사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해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 회담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전함으로써 북한 핵문제관련 북중간 교섭이 물밑과정을 거쳐 급속 진행될 전망이다.

중앙통신은 강석주 외무성 제1부상과 중국 후진타오 국가주석의 특사인 다이빙궈 국무위원이 만수대의사당에서 회담을 갖고 북·중간 친선관계 발전과 지역 및 국제문제들에 대해 “동지적인 분위기 속에서 허심탄회하고 깊이있는” 의견교환을 했다고 보도했다.

‘지역 및 국제문제들’에는 북핵문제와 6자회담, 북미 양자회담 등이 포함됐을 것으로 보인다. 다이빙궈 국무위원의 방북에는 특히 6자회담 중국측 수석대표인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이 수행함에 따라 6자회담 재개 방안이 심도있게 논의됐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다이 국무위원은 7월말 워전싱턴에서 열린 제1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중국측 수석대표로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과 회담했었기 때문에 정세에 대한 미국측 입장과 중국의 해결책 등을 북한의 대미외교를 총괄하는 강석주 제1부상에게 제시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연합뉴스

17일 오후 광주시 북구 용봉동 전남대 후문 앞에서 민주당 천정배 의원이 ‘민생 포장마차’를 개업, 전어를 굽고 민심을 듣는 등 민생투어를 하고 있다. /위직량기자 jrwi@

“민주당 재창당 해야”

기득권 포기·反MB세력 통합…지방선거 50% 당밖 공천

천정배 의원 광주서 ‘민생 포차’

민주당 천정배 의원(안산 단원갑)은 17일 “이명박 정권의 탐욕과 불의의 시대를 끝내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재창당 수준의 민주·개혁·진보세력을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날 오후 ‘민생 포장마차’ 광주 개업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은 정체성과 가치, 비전을 상실하는 등 지난 수년 동안 표류해 왔다”며 “이는 지난 총선 직후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방문했을 때 김 전 대통령도 지적했었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정체성 정립하면서 민주당 안팎의 모든 세력이 하나로 모아져야 하고, 통합이 어려운 반MB 세력과는 확실한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민주당의 진로를 제시했다.

천 의원은 이를 위해 민주당은 기득권을 포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의 체제, 정책·의사결정 구조, 공직후보자 선출 방식 등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며 “특히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당선 가능한 지역의 후보자 50%를 외부에 할애하는 등 기득권 양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포장마차를 끌고 전국 민생투어를 하고 있는 천 의원은 “14년 가량 국회의원을 하면서 타성에 젖었었다”며 “이번 기회에 민생의 애환, 생생한 민의를 온몸으로 느끼고 받아들여 국민들과 함께 ‘희망의 비빔밥’을 비비겠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이날 저녁과 18일 저녁 전남대 후문 앞과 상무지구 치평동성당 앞에서 포장마차를 운영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현장과 시각

KIA의 마지막 아웃카운트

김 여 울
체육부 기자

KIA 타이거즈 야구팬들의 즐거운 상상이 시작됐다.

16일 광주의 야구팬들은 이재주의 ‘대타 홈런’을 앞세운 통쾌한 승리의 기쁨을 만끽했다. 목동구장에서 열린 히어로즈와의 시즌 마지막 대결에서 2연승을 거두며 1위 자리를 지킨 이날, 광주에서는 두 번의 환호성이 터졌다.

13연승으로 무섭게 추격해오던 2위 SK가 LG와의 경기에서 12회 연장까지 가는 접전 끝에 폭투로 1점을 내주며 2-2 무승부를 기록한 것이다. 승률로 순위를 매기는 올 시즌 무승부는 패나 마찬가지. 정규리그 우승을 향한 KIA의 매직넘버가 SK의 무승부 덕분에 6에서 4까지 줄어들었다. KIA의 정규리그 우승 모습을 그려보는 즐거운 여정이 시작된 것이다.

최상의 시나리오를 대입해본다면 즐거운 상상이 현실이 되는 D-데이는 20일 일요일이 된다. 5경기를 남겨 두고 있는 KIA는 76승, 6경기를 남겨놓은 SK는 74승을 기록중이다. 18일부터 홈에서 열리는 LG와의 주말 3연전에서 KIA가 2승을 더하고, 한화와의 주말 2연전을 갖는 SK가 2패를 당한다면 KIA는 정규리그 우승을 축하하는 샴페인을 터트릴 수 있다.

물론 최상의 가정이다.

야구공은 둥글다. 투수를 포함해 10명의 선수가 주어진 27개의 아웃카운트를 가지고 힘을 겨루는 적자생존 게임이다. 점수를 내는 방법, 펼 수 있는 작전도 무궁무진하다. 승패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경우의 수를 따지자면 KIA가 SK보다는 유리하다. 그래도 방심은 금물이다. 8월 한달 20승을 싹쓸이하며 2위와의 게임차를 6.5게임차까지 벌였다가, 상승세가 꺾인 9월 0.5게임차로 턱밑까지 추격을 당하지 않았던가.

지옥같던 재활의 시간을 이겨내고 통산 100승을 달성한 이대진은 한 인터뷰에서 후배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프로는 무조건 잘해야 한다.” 냉정한 말 같지만 이게 프로 세계의 진리다.

이번 주말 LG와의 대결에서 KIA는 무조건 잘해야 한다. 올 시즌 상대전적만으로는 14승1무2패로 KIA가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다.

그러나 느긋하게 1위 독주를 즐기다 두산·SK와의 9월 마지막 대결에서 각각 2연패를 당하며 위기를 맞았던 만큼 남은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해야 한다.

9회 투아웃부터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1회부터 9회까지 앞서나가다가도 아웃 카운트 하나를 잡지 못해 패배자가 되는 게 야구다.

지금까지 KIA는 어느 해보다 상실감이 컸고 삶의 무게가 버거웠을 광주시민들에게 행복한 한 해를 선물했다. 하지만, 아직 2009시즌이 끝난 게 아니다. 선전을 기대한다. /wool@kwangju.co.kr